



민중의 염원 담긴 천불천탑의 신화

《미륵운주사 천불천탑의 용화세계》
펴낸 요한 힐트만씨

쓰지 않고 헛되이 밤하늘에 폭죽이나 터뜨렸던 동양인들의 사심없는 마음에 더욱 가치를 둔다.

현대문명이 과연 인간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는지에 대해 그는 비판적이다. “자연의 순환을 무시한 채로 경제성장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은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의 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해서도 안타까워 한다. 운주사 안쪽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논밭에 서 있는 석탑을 옮겨 철책을 둘러쳐서, 문화재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본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망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운주사 보존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사회를 힐트만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

다음 작업으로 힐트만 교수는 부인 송현숙씨(화가)와 함께 <신진대사 명주베의 신비(가칭)>라는 영화를 계획하고 있다. 누에로부터 명주옷이 만들어지는 과정(흔레복에서 수의까지)을 송현숙씨의 어린 시절과 더불어 담겨 될 이 영화는 산업화 이전 한국 농경사회의 문화에 녹아 있던 가치들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 마정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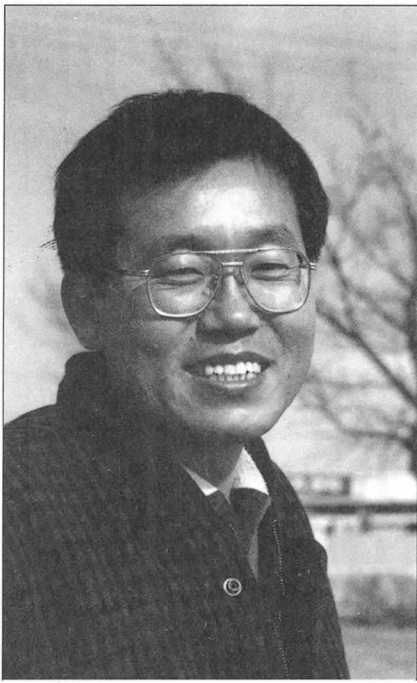
요한 힐트만 교수(59, 독일 함부르크대)가 감동받은 것은 해인사같은 명찰이나 대웅전이 찬란한 사찰이 아니라 소박하고 토속적인 절, 운주사다. 운주사는 미륵의 강림을 통해 펼쳐질 ‘용화세계’를 꿈꾸던 민중의 염원이 담긴 절. “외국인이 운주사의 상징과 의미를 어찌 알아?” 라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그의 책 《미륵...》을 들친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된다. 우리 문화에 대해 벽안의 교수가 가진 열정과 진지함은 자괴감이 들게 할 정도다.

“198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운주사 천불천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활과 신앙,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는 상징체계가 혼연일치되어 있는 만산계곡과, 소박하고 원초성을 지닌 불상과 탑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운주사 천불동의 ‘시적인 힘과 발전소같은 에너지’를 검증하기 위해 힐트만 교수는 오랫동안 불교사상과 음양·풍수사상을 비롯하여 설화·민담 등을 연구하여 책에 풀어 놓았다. 《삼국유사》와 바리공주 이야기, 도선국사 설화와 백제시대부터 동학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역사를 살펴보고, 김지하씨의 <오적>과 황석영의 문학에도 관심을 보인다. ‘중생’에 관한 이해도 동양인 못지 않다.

“중생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사람이 자연의 일부로 화합하는 개념이며,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화약을 만든 것은 중국인이지만 이를 실용화하여 대포를 만든 것은 예수회 수도사였다”는 헤겔의 말을 뒤집어, 그런 가공할 만한 힘을 발명하고도 살상 무기에



한눈에 보는 문경의 아름다움과 역사

《문경의 명산》 펴낸 김규천씨

감싼 산줄기로 돌아 예천군과 경계를 이루다가 다시 속리산에서 문경으로 돌아온다.

“사람도 같습니다. 땅과 거기서 나는 모든 것들을 인간과 하나인 자연유기체로 파악하고 더불어 흘러가야 합니다.”

《문경의 명산》은 처음에 홍보용으로 1천부를 찍어 무상으로 배포했지만 반응이 좋아 2천부를 유가로 찍게 된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책을 내고 싶다는 문의전화도 많아 반갑지만 하다. 이런 책을 통해 이름도 없이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아끼고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나아가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을 둘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문경지역 향토사연구회 회원이기도 한 김규천씨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경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계획한다. 야생화를 비롯해서 문경의 자생식물도 살펴보고 싶다. 그러다 문경이 너무 알려져서 사람들 손에 훼손되면 어쩌냐는 질문에 가난한 사람은 자연을 해치지 않는다며, 골프장을 만들거나 산을 뚫어 도로를 만들려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문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길 바랐다.

— 이현주 기자

《문경의 명산》(산악문화)은 김규천씨(41, 문경시청 관광개발과)의 10년 넘는 산행의 산물이다. 문경새재가 있는 주흘산을 비롯해 고작 2, 3백미터 안팎의 동네 뒷산까지, 문경지역의 이름붙은 산이라면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덕분에 66개라는 놀라운 숫자의 산이 수록됐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사랑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먼저 알아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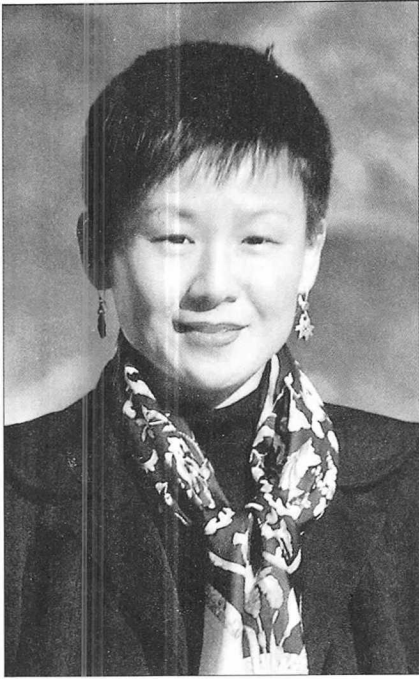
마을 지나 솔밭, 솔밭 옆 사당을 지나면 낙엽송시대와 둘무더기가 나타나고 직선으로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낙엽 쌓인 길을 걸으면 비로소 정상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산 속으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이 책은 문경 산세의 수려함과 조선시대의 영남대로(嶺南大路)를 둘러싼 역사성이 골자를 이룬다.

8대에 걸쳐 문경에서 300년을 살았다는 김규천씨는, 산 곳곳에서 만난 바위·물·나무에 얽힌 전설과 역사를 함께 소개했다. 지방문화재로도 지정되지 못한 유형·무형의 못생긴 유적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직접 찍은 500장의 컬러사진은 문경지역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한눈에 보여 준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생명선은 대수롭지 않아보이는 물과 땅이지요.”

아무렇게나 놓인 것 같지만 산은 결코 물을 넘지 않고 더불어 흘러간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다. 이 책에 나오는 산의 순서도 물과 함께 도는 산줄기로 배열했다. 백두대간을 따라 북으로 갔다가, 문경을





‘자기 앞의 생’ 달리는 마라토너

《워킹 뉴요커》 펴낸 나은경씨

미국에 건너간 지 20여년, 기업컨설팅 전문가로 성공한 워킹우먼 나은경(46)씨에게는 20여년간 품어온 꿈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책을 내는 것. 지난 연말에 드디어 20여년간 버리고 1년반 동안 집필한 《워킹 뉴요커》가 빛을 보게 되었다. 맹렬하게 일하고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뉴요커의 생활방식, 뉴욕의 문화와 자질구레한 주변 이야기들이 그 내용이다.

“혈혈단신 타국에 살며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메모를 했어요. 모든 기억과 사건을 수첩에 기록하며, 조국을 그리듯 언젠가는 책을 내고 싶었지요.”

20여년전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나은경씨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이 별반 없었던 이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자신을 옥죄는 생각이 들었다. 기를 펴고 살기 위해 이 땅을 떠날 결심을 했다.

뉴욕은 그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 곳이다. 아침 출근시간마다 가방 속에 하이힐을 집어넣은 채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며 무섭게 일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회사 ‘Na & Associates’를 설립했다. 기업 소프트웨어의 지역화 및 테스트, 이중언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개발 등 첨단분야의 기업컨설팅이 사업분야.

물론 그녀의 뉴욕생활이 성공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시행착오와 좌절, 외로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인생 여정 속에 많은 친구를 얻고 평생의 반려자이자 후원자인 남편을 만나기도 했으니 운명은 그녀에게 그리 가혹하지만은 않은 셈이다.

“뉴욕커로서 행복은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브로드 웨이의 뮤지컬과 오페라를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뉴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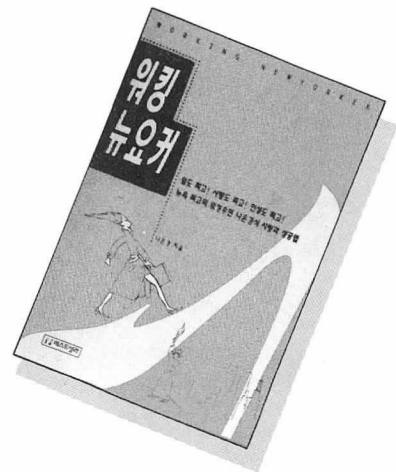
영화감독 잉그마르 베르히만의 열렬한 팬인 그녀는 사랑과 절교쯤은 이태리어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오페라광이다. 북클럽 활동에도 열심히, 뉴욕에는 많은 북클럽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책을 출간한 후 여성지의 인터뷰에서 ‘직접 썼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체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이 통용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책인데 남에게 맡길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책임기와 글쓰기의 도덕성에 있어서 나은경씨의 입장은 단호하다.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나은경씨는 오는 4월, 미국내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대회인 보스턴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자격을 얻기 위해 지난 몇 달간 42.195km의 마라톤 풀코스를 3번이나 뛰어 기록을 단축시켰다. 우선은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물론 인생의 마라톤은 아직 끝이 아니다.

— 마정미 기자



조상의 슬기가 옷이 밴 민예품

《옛살림 옛문화이야기》 펴낸 김용태씨

대나무자루·언뜻자루·학자루·봉황자루·원앙자루(이상 부채의 자루) 등 쓰임새에 따른 민예품의 이름들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김용태씨는 ‘깡통식혜론’에 반대한다. 깡통 속에 들어 있으면 식혜나 콜라나 매한가지라는 것. 다소 번거롭더라도 순수 식혜를 만들어보기를 권한다. 몸소 체험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김용태씨가 민예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외가가 있는 전남 장성의 논둑길에서 풀단지로 추정되는 작은 사기그릇을 발견하고 나서다. 그로부터 하나 둘 모은 것이 2백여점에 이르지만, 이들은 모두 ‘현역’이다. 신혼 때 귀신 나온다고 질겁하던 아내도 반닫이에 옷을 넣고, 옛 밥상에다 밥을 차린다.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화석’이라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민예품은 ‘박제’인 셈입니다. 박제와는 교감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물건은 손때가 묻었을수록 더욱 소중합니다.”

인사동이나 장안평의 골동품거리에서 포근함을 느끼는 김용태씨는 우리 문화의 ‘지킴이’다.

— 최성일 기자

“민예품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말하는 김용태(34, 리빙센스 기자)씨가 민예품을 중심으로 우리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풀어쓴 《옛살림 옛문화이야기》(대경출판)를 펴냈다. 그가 일하는 여성 생활정보지에 1년 반동안 연재한 ‘멋과 정취가 있는 에세이’를 토대로 만들었다.

이 책에는 수천년 동안 이 땅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네 살림살이가 살아숨선다. 삶의 세가지 방편인 의·식·주를 즐기삼아 우리네 습속으로 안내하는데, 단순히 복고취미에 머물지 않고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깃들여 있는 철학까지 끄집어 내고 있다.

“접시만 해도 하나같이 둥그렇습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한편, 남을 배려하면서 조화롭게 살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작은 접시 하나에도 조상의 슬기가 옷이 배어 있습니다.”

김용태씨는 처음 이 책의 출간을 망설였다. 전통건강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 《심주섭할아버지의 뜨겁지 않은 썩뜸 치료법》의 출간에 이은 것인데도 그랬다. 비전문가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쓴 감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생활양식을 훌륭히 보듬었다. 알 만한 사람을 찾아 물어보고, 문헌을 뒤적여 얻은 결과다. 이렇게 품을 판 흔적은 민예품에 대한 정감 넘치는 설명으로 나타난다. 특히 항목의 나열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된다.

대독·자배기·방구리·귀대접·학동·옹배기·소래기·앵병(이상 옹기), 석류자루·버섯자루·복숭이자루·

